

# BIG, BIG, BIG

24 August – 30 September 2021

THE  
PAGE  
GALLERY

# THE PAGE PRESS GALLERY RELEASE

---

##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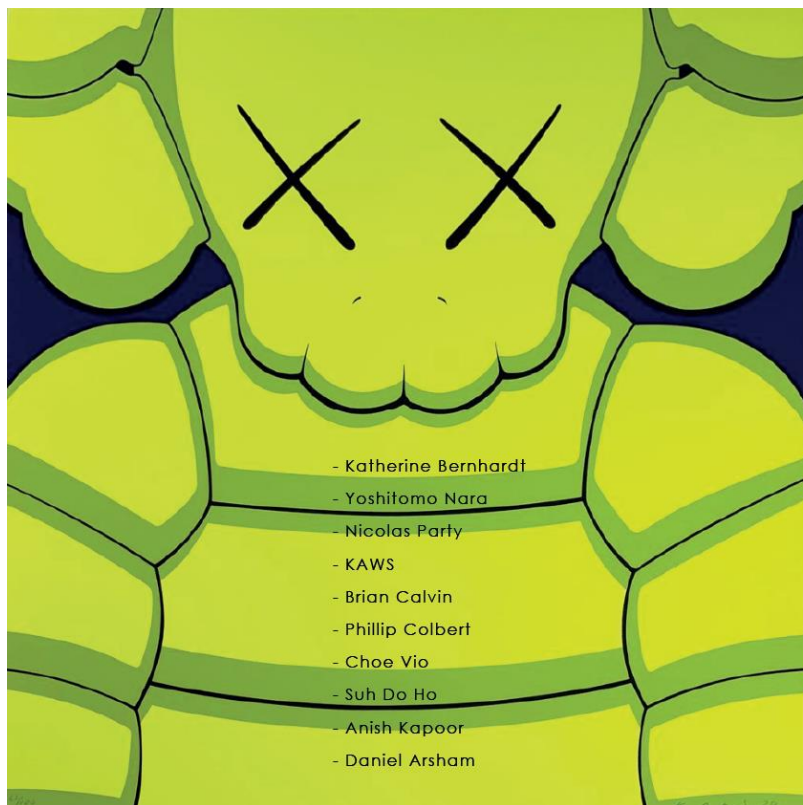
이은주 eunju@thepage-gallery.com / 채현진 thepage@thepage-gallery.com

\*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BIG, BIG, BIG**

2021.08.24 - 09.30 (EAST)

[2021.08.24.-09.30.]

## BIG, BIG, BIG

예술작품에서 '규모'는 관객의 미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대한 작품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승고하고 무한한 세계로 관객을 이끌기도 하고, 대상이 작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이질적인 감각을 일깨우기도 한다.

더페이지갤러리는 아니쉬 카푸어, 나라 요시토모, 서도호, 니콜라스 파티 등 국내외 작가들의 대형 조각 및 회화 작품으로 구성된 그룹전 <BIG, BIG, BIG>을 선보인다. 사람, 동물, 자연, 그리고 무의식의 추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주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작품들은 압도적 크기와 다채로운 색채로 전시장을 채운다.

전시장에 들어서며 마주하는 아니쉬 카푸어의 커다란 구는 특유의 오묘한 색과 함께 마치 벽에 떠있는 것 같은 초현실적인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를 마주보는 카푸어의 거대한 핏빛 회화 역시 공간을 압도한다. 전시 공간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서도호의 <Cause and Effect>는 무등을 타고 이어진 인간 군상으로 만든 상들리에 형태의 설치작업으로, 끈끈한 유대와 공동체적 운명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한편, 캐서린 버나트, 브라이언 켈빈, 최비오, 필립 콜버트 등 떠오르는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팝' 혹은 '네오 팝'이라는 장르로 느슨하게 묶이는 이 작가들은 최근 몇 년간 미술 시장 및 비엔날레, 전시에서 개성적인 화풍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니엘 아삼과 알렉스 무스토넨이 함께 이끄는 뉴욕 기반 공동 프로젝트 '스나키텍처(Snarkitecture)'의 가구, 예술품, 장식품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화려하고 밝은 색감과 형태의 회화, 조각은 관객에게 친숙한 얼굴로 다가가나, 예술과 일상, 사회의 경계에서 날선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BIG, BIG, BIG> 전시는 더페이지갤러리 EAST관에서 열리며, WEST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정명택 작가의 아트퍼니처 신작전 <무위재고>도 함께 관람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전시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 PARTICIPATING ARTISTS

## 아니쉬 카푸어 / Anish Kapoor [British-Indian, b. 1954\*]

아니쉬 카푸어는 형태와 기술을 실험하는 거대 공공 조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료, 섬유유리, PVC 등 다양한 재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조각가이자 화가인 그는 단순한 형태로 무한과 공허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다. 그는 순수한 안료만을 쌓아 올리거나, 거울을 극단적으로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만든 조각 등으로 시각적 충격과 함께 관객을 상상과 명상의 차원으로 인도한다.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대표 작가였으며, 1991년 영국 터너상을 수상했다.

## 브라이언 캘빈 / Brian Calvin [American, b. 1969\*]

캘리포니아의 감수성을 담은 풍경과 초상을 그리는 브라이언 캘빈은 1990년대부터 서사가 없는 회화적인 스타일의 구상화를 탐구해왔다. 대규모 캔버스, 클로즈업된 모델, 화사한 색채, 원근감 없이 납작하게 표현된 질감 등이 그의 주요 스타일이다. 그는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때로 인물의 눈이나 입 등 신체부위를 과장하지만, 추상화에 가까울 만큼 담백하게 표현된 배경과 인물의 구도, 표정은 오히려 대상의 공허함을 강조한다.

## 서도호 / Do Ho Suh [Korean, b. 1962\*]

서도호는 매체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집, 물리적 공간과 기억, 개인, 집단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여러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집의 내외부를 바느질로 섬세하게 재현해낸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어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다.

## 에디 마르티네즈 / Eddie Martinez [American, b. 1977\*]

미국의 화가 에디 마르티네즈는 그래피티를 연상시키는 스타일과 볼드한 컬러의 페인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화물감, 에나멜 페인트, 실크스크린, 에어스프레이 등을 비롯하여 때때로 껌 포장지나 물티슈 등을 작업의 재료로 선택하는 마르티네즈의 작품은 회화의 전통적인 맥락과 비관습적인 태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실천은 액션페인팅, 신표현주의, CoBra 등 이전 세대의 미술 운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자유로운 재료 선택과 주제 설정은 편리성과 가벼움을 추구하는 동시대 문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 조나스 우드 / Jonas Wood [American, b. 1977\*]

조나스 우드는 일상의 물건,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새로움과 익숙함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의 그림은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납작한 그래픽과 같으면서도 기하학, 패턴, 컬러의 구성요소가 층층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긴장감을 선사한다. 드로잉, 프린트 등 크기와 기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작업은 인테리어나 풍경, 스포츠 등 일상을 바라보는 신선한 시선을 제시한다.

#### **캐서린 버나트 / Katherine Bernhardt** [American, b. 1975\*]

캐서린 버나트의 작품은 패스트푸드, 담배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 혹은 거북이, 열대 과일과 같은 열대 자연의 요소에서 그 맥락을 제거하여 새롭게 환기시킨다. 가필드, 핑크팬더와 같은 추억의 캐릭터들과 함께 캔버스 위를 떠다니는 각각의 요소에는 위계 질서가 없다. 그는 차분한 색감에서부터 화려한 형광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색채를 사용하여, 높은 캔버스 위에 스프레이와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의 작업은 익살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물건에 대한 집착, 관점의 전환,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녹아 있다.

#### **카우스 / KAWS** [Brian Donnelly / American, b. 1974\*]

팝 아티스트 카우스(KAWS)는 스트리트 아트 분야의 그래피티 아트로 작업 활동을 시작했으며, 예술 시장 내외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큰 영향력을 가진 작가다. 그는 잡지 표지 일러스트, 패션 영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반 아트와 그래픽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동반자'라는 의미의 'Companion'은 카우스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캐릭터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작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 캐릭터는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며 팝아트의 한 장르로 '아트 토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니콜라스 파티 / Nicolas Party** [Swiss, b. 1980\*]

깊고 신비로운 풍경, 정물, 초상화를 그리는 니콜라스 파티는 지난 몇 년간 시장과 평단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다. 부드러운 파스텔로 대상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고유 화풍이 드러난 회화와 함께,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거대 두상 조각은 작가가 고대 채색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업이다. 그래피티 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작가의 경험이 거대 조각을 채색하는 작업 과정과 퍼포먼스 그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강렬한 색채의 조각과 회화는 그의 작품을 위해 따로 조성된 비비드한 컬러의 벽과 어우러져 관객을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인도한다.

#### **필립 콜버트 / Philip Colbert** [British, b. 1979\*]

런던에서 활동하는 필립 콜버트는 그가 만든 '랩스터' 페르소나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리처드 해밀턴, 로이 리히텐슈타인, 제임스 로젠퀴스트 등 초기 팝 아티스트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그는, 미술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이퍼 팝아트 역사화'를 그린다. 고전 회화, 현대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 요소와 동시대 대중 문화의 상징이 난무하는 화면에는 콜버트의 또 다른 자아인 랍스터가 늘 스며들어있다. 2017년, 2018년에 사치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를 기점으로 대규모의 서사가 담긴 페인팅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 **스나키텍처 (다니엘 아삼 x 알렉스 무스토넨) / Snarkitecture (Daniel Arsham x Alex Mustonen)**

[Est. 2008]

스나키텍처는 다니엘 아삼과 알렉스 무스토넨이 공동 설립한 뉴욕 기반의 프로젝트 그룹이다. 예술, 디자인, 건축 등 전방위적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두 예술가가 건축과 예술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의 설치부터 인테리어 소품, 일상품, 건축 구조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다. 일상의 경험에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 **최비오 / Vio Choe [Korean, b. 1971\*]**






최비오는 무의식 상태로 그린 선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결성을 표현한다. 뉴욕에서 수년간 예술감독, 게임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조형언어와 세계관을 발전시켰다. 그는 계획되지 않은 무의식과 본능의 영역에서 작업하고자 하며, 화가의 의도와 테크닉에 의해 에너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붓이 아닌 튜브로 물감을 짜서 선을 표현한 것도 그 이유이다. 최비오는 지난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관(Personal Structures)에 초청되어 전시한 "Universe in my mind" 시리즈 작품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 **나라 요시토모 / Yoshitomo Nara [Japanese, b. 1959\*]**

귀엽고 사악한 모습을 동시에 가진 소녀의 그림으로 잘 알려진 나라 요시토모는 판화, 회화, 조각 등을 통해 고독과 반항, 정신성의 주제를 다룬다. 무라카미 다카시와 같이 네오-팝 아티스트로 분류되며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작품과 연결 짓는 작가이다.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조각을 작업하였는데,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거대한 강아지 조각은 요시토모가 2008년 발표한 그림책 <The Lonesome Puppy>에 등장한 강아지를 소재로 한다. 어린 소녀가 거대한 슈퍼사이즈 강아지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로, 대형조각으로 제작된 강아지의 머리는 순수한 동심과 그 이면의 고독감, 슬픔, 희망을 표현한다.

# SELECTED ARTWORK LIST

	IMAGE	CAPTION
01		<b>Anish Kapoor</b> (British-Indian, b. 1954*) <b>Blood Hole</b> 2018, Oil on canvas 274 x 213 cm
02		<b>Anish Kapoor</b> (British-Indian, b. 1954*) <b>POP II</b> 2010, Fiberglas 121.5 x 121.5 x 121.5 cm
03		<b>Yoshitomo Nara</b> (Japanese, b. 1959*) <b>Big Pup Head</b> 2007, FRP 150 x 123 x 125 cm Ed. 1/2, 1AP
04		<b>Katherine Bernhardt</b> (American, b. 1975*) <b>Fist Bump</b> 2020,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43.8 x 304.8 cm
05		<b>Philip Colbert</b> (British, b. 1979*) <b>Flower Study XV</b> 2020, Oil on canvas 133 x 163 cm
06		<b>Philip Colbert</b> (British, b. 1979*) <b>Flower Lobster Skateboarding (Magenta)</b> 2020, Oil on canvas 132 x 163 cm
07		<b>Philip Colbert</b> (British, b. 1979*) <b>Hunt Study Starry Night IV</b> 2020, Oil and acrylic on canvas 163.5 x 133 cm
08		<b>Brian Calvin</b> (American, b. 1969*) <b>Pismo</b> 2007, Acrylic on canvas 60.96 x 99.06 cm

09		<p><b>Brian Calvin</b> (American, b. 1969*)  <b>Pose</b>  2014, Oil on canvas  152.4 x 121.9 cm</p>
10		<p><b>Brian Calvin</b> (American, b. 1969*)  <b>Aurora Borealis</b>  2009, acrylic on canvas  132.1 x 132.1 cm</p>
11		<p><b>Snarkitecture</b> (Est. 2008. Daniel Arsham x Alex Mustonen)  <b>Broken Square Pink</b>  2021, Polyurethane, glass  100 x 100 x 20 cm</p>
12		<p><b>Snarkitecture</b> (Est. 2008. Daniel Arsham x Alex Mustonen)  <b>Broken Pink</b>  2021, Polyurethane, glass  200 x 100 x 20 cm</p>
13		<p><b>Snarkitecture</b> (Est. 2008. Daniel Arsham x Alex Mustonen)  <b>Broken Pink</b>  2021, Polyurethane, Guflac, plastic agglomerate  43 x 190 x 70 cm</p>

## BIG, BIG, BIG

### EXHIBITION

2021. 08. 24 – 09. 30

### CONTACT

02-3447-0049

[www.thepage-gallery.com](http://www.thepage-gallery.com)